

## | 관악초청강좌 리뷰 |



2008년 1학기에는 모두 두 차례의 <관악초청강좌>가 진행되었다. <열린 지성>에서는 지면을 통해 이번 학기 관악초청강좌에서 만나 보았던 선생님들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되돌아 살펴본다.

###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자화상" - 박경서(前 UN인권대사)]

4월 22일, 31회 관악초청 강좌는 박경서(前 유엔인권대사, 現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선생을 모시고 “지구화 시대, 한국인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경서(朴庚緒 · 69)선생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1976~1982년), 스위스 제네바 세계교회협의회(WCC)아시아정책위원회 의장(1982~1999년),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2001~2006년)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날 관악초청강좌에서는 박경서 교수가 20년 동안 제네바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국제기구활동을 중심으로 유엔에서의 한국인의 위상과 한국의 국제 활동을 조망하였다. 또한 8년간 인권대사로서 경험한 우리 민족의 현주소, 남북문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선진국 도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박경서 선생의 관악초청강좌는 고철환(지구환경과학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정진성(사회학과, 現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교수와 정형민(동양학과, 서울대 미술관장), 이현숙(생명과학부)교수가 참여하였다.

## ["사회학자 신용하의 삶과 학문" - 신용하(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3월 26일, 제30회 관악초청강좌 '사회학자 신용하의 삶과 학문' 이 진행되었다. 사회역사학자인 신용하(眞鏞廈·71)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고, 서울대를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독도 영유권문제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사, 독립운동사 등 한국근현대사 연구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로서 신간회 연구서인 <<신간회의 민족운동>>(경인문화사)을 저술한 바 있다.

이 날 관악 초청강좌는 신용하 교수의 사회학자로서의 삶의 여정과 학문적 성취를 조망하고 성찰하는 자리로 사회는 강명구 교수(언론정보학과), 패널로는 임현진(사회과학대학), 황상익(의과대학), 이순형(생활과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관악초청강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gwanaklecture.snu.ac.kr/>

## | 교과목 소식 및 행사 |

### '사회봉사3(해외봉사)' 하계 계절 학기 운영

<사회봉사3>교과목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러시아와 네팔에 봉사단을 파견한다. 러시아 팀은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3박 14일 동안 활동하고, 네팔 팀은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4박 15일의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러시아 팀은 강신후(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의 지도로 14인의 학생이 봉사단에 참여하며,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아시노프카 마을에 집단 거주하는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봉사활동은 아시노프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문화교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스리스크 시내의 고아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문화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의 삶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봉사활동, 문화탐방까지 가능한 커리

클럼이 짜여있다.

네팔 팀은 이효원(법과대학 법학부)교수와 송성진(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교수의 지도 아래 14인의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네팔 카트만두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활동은 빈곤 아동의 문맹 퇴치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포함하며 Shree Sarswoti Higher Secondary School에서 벽화 작업과 정원 가꾸기, 교육 후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미나와 조사활동, 실천 봉사까지 포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제 4회 기초교양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초교육원에서는 "대학 학부교육의 발전 방향과 기초교양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2008년 6월 12일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대학 교양교육 협의회' 회원

대학의 교양교육 책임자와 관심 있는 교수 및 관련 행정가, 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해외에서는 예일대학교 학장 피터 살로베이 교수와 싱가포르국립대학 USP 프로그램 부소장 강 휴웨이 찬 교수, 옥스퍼드대 학부 연구소장이자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로버트슨,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대학장 폴 스노우덴 교수가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초강연과 미래사회와 기초교양교육, 학부교육과정의 융복합적 접근, 그리고 기초교양교육의 운영체제종합이라는 다양한 주제의 Session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및 우리대학 현실에 적합한 기초교육 모델의 방향을 탐색하고 기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내외 분위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61동 320호(교수학습개발센터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6월 12일 오전 9시 등록을 기점으로 시작된다.